

2013 Easter Worship Mar. 31

귀한 동역자님께,

빠레아 예수, 루엣 라응 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롬, 캄보디아의 정지웅/은영 선교사입니다. 먼저 부활의 능력이 모든 분들께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지난 3월 31일 주님의 제자 교회 JEJA House & Church 의 2013년 부활주일을 큰 기쁨과 감사 속에서 잘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동역서신 이후의 소식들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매번 글로 담지 못하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 늘 감사드리게 됩니다.

지난 1월부터 10주간에 걸쳐 십계명 시리즈 설교를 마치었습니다. 저희는 예배시간에 찬양과 말씀 본문을 읽을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10주동안 같은 본문을 반복하며 모두 외우게 되었고, 더불어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매주 통독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해 복음의 기본 원리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모두 신앙의 기준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초등학교 조회시간에, 운동장 한가운데 한명이 손을 들어 기준을 외치면 이후 모두가 정렬되었듯이, 이들이 이후 이 땅 곳곳의 하나님 말씀의 기준점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올해들어 전체 성경통독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명 NTRP New Testament Reading Project 로 신약성경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하니 지루하지 않고, 설명을 들으니 어렵지 않고, 핵심 구절들을 외우고 마치니 확실히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을 다 읽으면, 신구약 합본을 선물로 주기로 하였는데, 기분 좋게 넉넉히 준비해두었습니다. (좌: 에베소서 통독 시간)



지난 2월, 캄보디아국립대학생 중 5명을 뽑아 한국의 전주대학교로 편입생을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 3명이 응시했고, 모두 합격(1등 포함)하였고, 그중 한명이 지난주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 싸꼐이고, 작년 11월 깜뽕짬 단기선교 후 시골집(어부)으로 심방을 갔던 예수님을 영접한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학업은 기본이고, 신앙에 있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단단해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편입생 시험에 합격했으나 캄보디아에 남게 된 두명의 제자로 인해, 이후 대학원 준비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CE Advanced Course of English 라 명하고, 10 주를 한 학기로, 1 년 4 학기 총 2 년 과정으로 대학생을 위한 주중 영어 집중반입니다. 한주 공지를 하였는데, 외부 학생들 몇명이 합류하게 되면서 12 명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 4 개 대학의 학생들로, 2 명은 프놈펜 밖 지방에서 매주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오고 있으며, 지난학기 과수석을 한

학생도 2 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1-2 년 후 대학원 진학이나 유학의 실제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동시에 믿음을 없는 이들을 교회로 전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캄보디아국립대학의 예배 공동체 분들과 함께 프놈펜에서 4 시간 떨어진 뽕삿이라는 지방으로 1 일 비전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무슬림 마을로, 공동체의 한분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협력하고 계시는데, 저희 모두 함께 기도해오던 중, 날을 정하여 방문한 것입니다. 동네 아이들과 주민들, 노동자들에게 성경과 학용품을 나눠주고, 또 교회터에서 땅을 밟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실하고 헌신된 현지 사역자와 단단한 처음 회심자 그룹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세종학당 강의는 2 월말로 마쳤습니다. 학교에서 자체 운영으로 변경되었고, 현지 선생님들로 강의를 중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의 대학과 교회 사역에 더 집중합니다. 마지막 강의를 들었던 이들 중, 찐다라 청년이 3 월말 한국으로 갔습니다. 떠나기전 제게 찾아와 감사하다며 선물을 하나 주었는데, 바카스 였습니다.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작년 캄뵙짬 단기선교 이후, 지난 3개월간 저희 교회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김장훈 교수님^{아주대 건축과}께서 지난달 15일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차편없는 학생을 예배로 데리고 오시고, 한글도 가르쳐 주시고, 특히 설거지에 있어선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모두와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셨으며, 함께 하는 사역의 기쁨을 저희 부부에게 가르쳐주신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 피롬 Phirum의 매형이 작년말 너무도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시골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20대 후반으로, 두 아이의 아빠였는데, 다른 노동자와 다름에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피롬은 저희 교회 출석하며 믿음을 처음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너무 화가 나고, 또 누나와 조카들이 참으로 불쌍하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기도하던 중, 한 분이 듣고 6개월간 생활비를

보조하시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선교지정헌금을 넣으시고 교회가 1년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피롬의 누나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사랑스런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 더욱 가슴이 미어집니다.

부활주일^(3.31), 예배 후 동네 노방전도를 하였습니다. 교회에 와서 복음을 처음 접하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배워가는 이들, 그들에게 노방전도는 어색하고 부담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고 기쁜 추억으로 마쳐졌습니다. 먼저 예배 설교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계속 반복하여 큰 소리로 따라하도록 하였습니다. 3-4 번이 넘어가자 이상해 여기는 눈치였지만,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또렷하고 확신의 찬 어조로 반복시켜갔습니다. 이마와 마음판에 새기고 있다는 마음으로.. 예배 후, 계란에 글을 쓰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늘 더운데, 특히 4월이 일년중 가장 덥습니다. 현지인들에게도 지독히 더운 날씨입니다. 하지만, 바랬던 것 보다 훨씬 모두들 잘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며 세뇌당한(?) 말을 전하고,

계란과 전도지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가가 주는 것을 보며, '정말 은혜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1 시간 정도 준비했던 것을 다 주고 땀 범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제야 집에 왔구나'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잠시 제 자신을 떠올려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전도지를 주고, 연락처를 묻고, 또 때때로 외면당했던 기억들, 그런데 알 수 없는 뿌듯함과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외칠 수록 내 안에 강한 것이 생겼던 것을 돌이켜보며, 이번의 노방전도가 모든 이들의 삶가운데 분명 결정적인 신앙의 또하나의 초석이 되었을 것이란 믿음이 들었습니다.

돌아와 김밥을 맛있게 만들어 먹고, 남아서 놀다가 지쳐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점점 놀이터요, 집이 되는 것 같아 또한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제게 믿음 주신 것이 가장 감사하고, 그 믿음 전하는 데 사용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동역해주심을 늘 감사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제목:

1. 성령충만하여 맡겨진 영혼과 사역(학교, 교회)을 잘 감당하도록
2. 깊이있는 예배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견고히 자랄 수 있길
3. 정선교사의 부모님이 4월 말 2-3주 캄보디아에 방문하십니다.
건강하고 기쁜 시간들 주시고, 특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4. 가족모두 더운 날씨에 건강하고, 온유 주언이가 은총가운데 잘 자라길

2013년 4월 5일

정지웅/은영, 온유, 주언 올림

- * 정지웅 선교사의 간증이 CTS 기독교 TV, '내가 매일 기쁘게' (1843회)에 소개되었습니다 (3월 28일)
- * 선교사역의 후원 안내를 원하시면 알려주세요.
- * 다음장 - 에필로그 (두렵든 상)

Epilogue - 두 랩돈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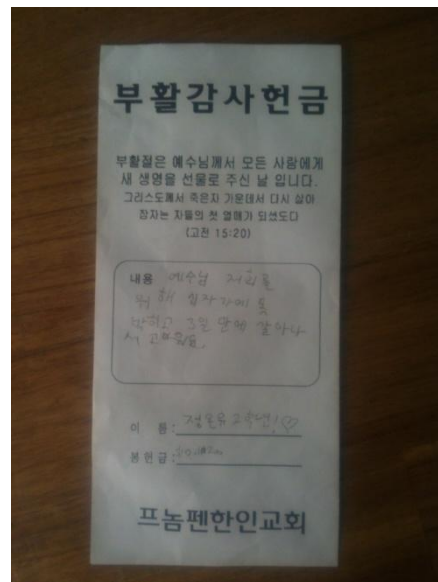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두고, 온유가 제게 봉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로 나가는 한인교회의 부활주일 헌금 봉투였습니다. 봉투위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서 고마워요’. 이름 : 정온유 2학년!, 봉헌금 : \$10 + 1200 리엘^(30 센트).

이때 제 마음에 몽클한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옛날 두 랩돈을 성전에 드리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었지.. 더불어, 어떻게 이 어린 것이 이런 생각을 하였지는 기특하고 놀라웠습니다.

온유에게 ‘멋지다, 예쁘다, 잘했어, 최고야’ 등등 칭찬을 해주었지만,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랩돈 상’을 제안했습니다. 부활주일에 3 가지 아무거나 먹고 싶은 것을 사 줄테니 평소 원하던 것 뭐든지 가격을 초월하여 종이에 적으라고 하였습니다. 온유가 신이났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적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골드피쉬 과자^(새우깡 같은 미국의 보통 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 미국 과자’ 였습니다. 이것이 평소 소원이었나.. 하는 마음에 잠시 찡했습니다.

주언이도 평소 헌금^{\$1}의 3 배를 했고, 동일하게 두랩돈 상을 받았습니다. ‘양파링’이 포함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 Praise to Lord -